

전남지역 5·18유공자 ‘민주 명예수당’ 지급 추진

도의회 생활지원금 조례안 입법예고 월 6만원 지급... 전국 첫 사례 생계지원비 수급대상 범위도 확대

전남에 거주하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월 6만원씩 ‘민주명예수당’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전남도 조례는 행편이 곤란한 5·18 민주유공자에게만 월 13만원의 생계지원비를 주도록 했는데, 생계비 지원 대상이 아닌 유공자에게도 명예수당을 주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에 전남도의회가 착수한 것이다. 계획대로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 전남도는 5·18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주는 첫 광역단체가 된다.

2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전남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 예고하고 8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5·18 4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5·18유공자의 헌신을 합당하게 예우할 수 있도록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 개정 작업이다. 입법예고 기간 조례 개정 반대 의견 등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5·18유공자에게 월 6만원의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생계지원비 수급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현행 조례는 전년도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통계청 발표) 130% 이하 가구인 유공자 또는 유족에게만 생계지원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이에 더해 ‘생계지원비 신청일 기준 만 65

세 이상’ 유공자 또는 유가족까지 범위를 넓혔다.

다만 생계지원비 수급 유공자는 민주명예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민주명예수당 대상자 가운데 시·군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경우, 차액만 지급하기로 했다.

민주명예수당 신설에 따라 조례 명칭도 ‘전남도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추진한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생계비를 지원받는 5·18유공자는 현행 246명에서 493명으로 늘게 된다. 명예수당 수급 유공자는 223명 생겨난다. 관련 예산은 현행 연 3억 8300만원에서 9억29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 개정에서나선 우승희 전남도의원(영암1·교육위원장)은 “생계가 곤란한 5·18 민주유공자들에게만 생계지원비를 지급하는 현재의 예우 방식은 합

당하지 않다”며 “조만간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조례 개정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의회와 달리 전남도 일각에서는 예산 증가 부담을 걱정하며 우선 생계지원비 지급 대상자를 생계곤란 유공자 및 65세 이상 유공자로 확대하고, 민주명예수당 신설은 다음 기회로 미루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호 기자 khh@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20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묘비를 닦는 등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묘비 닦기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20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묘비를 닦는 등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확대 업종도 학원·약국·의원 등 다양화

전남도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돼 유통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골목상권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맹점 확대와 업종 다양화를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수는 올해 3월 기준 4만5313개소로 지난해 말 3만6861개소 대비 23%인 8452개소가 증가했다.

시·군별로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전자카드나 유통된 광양시의 경우 9000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순천시 6477개소, 목포시 5867개소, 여수시 3458개소, 해남군 2660개소, 영광군 1832개소, 완도군 1722개소, 무안군 1720개소, 나주시 1621개소, 화순군 1463개소 등이 다.

전남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임박함에 따라 전통시장과 도서지역 등 소외지역 없이 편리하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가맹점 수 6만 개를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업종도·소매업과 음식점 위주에서 이·미용업을 비롯 학원, 약국, 의원, 숙박업 등으로 다양화하고, 대형점포 매출 쏠림 방지를 위해 가맹점별 환전환 단액을 100만원 이내로 설정할 것을 시·군에 권장했다.

한편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돕기 위해 긴급생활비를 비롯 소상공인 공공요금, 택시종사자 지원 등 다양한 민생지원 대책을 시행중에 있으며,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시, 지역학생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빛고을장학재단, 60명에 4750만원

광주시 빛고을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학생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장학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발생으로 급격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세대 또는 실직 세대 등의 자녀로 광주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대학생이다. 대상 인원은 대학생 37명, 고등학생 18명, 중학생 5명 등 총 60명이며, 이들에게 총 47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신청자는 폐업사실 증명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

제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증빙서류를 지참하고 21일부터 23일까지 자치구 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광주시 청년청소년과에 문의하면 된다. 최종선발 장학생은 오는 29일 장학생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당일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강영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 직무대행은 “재단의 한정된 재원으로 다수의 장학생 선발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번 장학금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매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연말까지 최신 수치지형도 제작

상·하수도 등 6대 지하시설물 정보 추가

광주시는 변화된 지형·지물 정보를 최신 정보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1/1000 수치지형도 수정 갱신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치지형도는 항공사진측량 기술로 지상의 위치와 지형, 건물, 도로 등 각종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도형, 기호, 색상 등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다.

국토지리정보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지난 2008년 최초 제작된 이후 장기간 갱신되지 않은 일곡동, 봉선동 등 구도심권 34개 동 일원 52.5㎢이 대상이며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광주시는 이번 갱신사업에 상·하수도, 가스, 통신관로 등 6대 지하시설물의 위치와 속성 정보를 추가해 도시계획, 도로, 교통, 지역개발, 건축, 소방, 재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행정시스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관련 정보는 내년부터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매년 수치지형도의 지속적인 갱신을 통해 최신 공간정보를 시민에게 서비스할 계획이다”며 “시민께서는 현지 지리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방문할 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12억원 지원

유기농 등 품목 다양화 유도

전남도는 20일 “12억원을 투입해 농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유기농 등 친환경농산물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서다.

전남도에 따르면 2ha(2만㎡·6050평) 미만 신규 농가의 인증비는 수수료, 토양분석, 수질검사, 잔류농약 분석비 등을 포함하면 평균 79만1000원이다.

이미 인증을 받아 1년 단위로 갱신하는 농가의 경우 토양·수질 검사를 제외한 잔류농약 분석비 등 67

만3000원이 소요된다. 전남도는 이 중 90%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낸 농가(단지)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 서류를 가지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는 농업인이 인증기관에 신청서와 생산계획서, 생산량 등 영농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약 50일간 심사 기간을 거쳐 발급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귀농산어촌 누리집’ 새 단장 원스톱 서비스

전남도가 운영하는 ‘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센터 누리집(infarm.jeonnam.go.kr)’이 새롭게 개편, 20일 운영에 들어갔다. 귀농·산·어·촌에 대한 정보를 한데 모아 원스톱 서비스 방식으로 바뀌었다.

개편된 누리집은 귀농산어촌에 관한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지원정책과 교육계획을 담고 있다. 주택·

농지 정보 등 예비 귀농산어촌인이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누리집을 반응형 웹으로 구축해 모바일, 태블릿 PC와 연동이 가능하며,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연결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당신과 가장 가까운 금융 지킴이

금융이 언제나 힘이 될 수 있도록
MG새마을금고는 당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MG 새마을금고